

지역

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 청년농 소통간담회

김대호기자 mantough@kwnews.co.kr

입력: 2025-03-12 16:17:37





◇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는 지난 11일 지사 회의실에서 청년농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.

【철원】 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(지사장:김용구)는 지난 11일 지사 회의실에서 청년농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.

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 내 청년농업인과 유관기관 및 공사 담당자 등 10여명이 참석해 청년농업인 농지지원 제도 개선 및 농산업 발전방향을 모색했다. 철원지사는 농지은행의 맞춤형농지지원사업, 농지임대수탁사업 등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지난해 577개 농가에 73ha를 지원하며 청년농의 영농 정착을 이끌고 있다. 올해부터는 청년농을 대상으로 선임대후매도사업 등 청년농업인을 위한 농지지원의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농지 확보 등 초기자본 확보가 어려운 청년농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.

김용구 지사장은 "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이 성공적으로 영농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"며 "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SNS 등을 활용하는 소통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나갈 것"이라고 말했다.

김대호기자 mantough@kwnews.co.kr

입력:2025-03-12 16:17:37

